

##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 표준을 위한 기초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정	유금란	허재홍	신효정	조효진	서은경 <sup>†</sup>
아주대학교 조교수	가톨릭대학교 교수	경북대학교 교수	아주대학교 부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 법제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심리상담사로 대중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갖추기 위한 교과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시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심리상담 전문가자격제도를 갖춘 해외의 대표사례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대만을 선별하고, 해당 국가의 심리사와 상담사 자격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핵심역량과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국은 공통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상담과 평가, 연구, 자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위한 지식역량과 기술역량 또는 자기성찰 역량을 요구하며 관련 교과 또는 교과 영역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국가직무역량표준에서 심리상담사의 역량과 교육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심리상담과 관련된 세부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필요 능력을 제시하고 각 능력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과교육 표준에서 고려할 점과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 심리상담 법제화, 해외, 국가직무역량표준

\* 본 연구는 2023년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중장기발전TF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분석 결과에는 2023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중장기발전TFT에서 진행한 연구 자료 중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결과 발표 및 출간에 대해 2023년 동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2023년 11월 1일)을 받았음.

† 교신저자 : 서은경,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우 0404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4 서교제일빌딩 502호  
Tel: 02-330-2025, E-mail: psg18seo@gmail.com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서론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해 왔고 그와 함께 상담심리와 관련된 학과 및 대학원 전공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현재 4년제 일반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에서 학과명에 상담, 심리, 심리치료가 포함되어 개설된 곳은 164곳이며, 상담심리와 관련된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일반, 교육, 특수, 전문)은 408 곳으로 파악된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3). 상담 및 심리치료를 교육하는 고등교육과정의 급등은 정신건강과 심리상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심리상담에 대한 일반 성인의 인식 연구(이한나, 이정운, 2023)에서는 심리상담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공감해주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등이 보고되었고, 가장 관련이 낮은 것으로는 ‘귀찮은’,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등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심리상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은 국민 정신건강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에 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용성이 보장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로는 지금까지 심리상담 자격제도가 국가 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지적된다(김인규, 장숙희, 2019). 현재 사설 심리상담센터 개소는 신고제이며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특정 전문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비윤리적, 비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석사 이상의 학력과 높은 수련 및 교육요건을 충족시켜야 취득할 수 있는 상담심리사 자격을 발급 및 유지하고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가 1973년 최초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한 이래로 현재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엄격한 수련을 마치고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회원은 7,207명(1급 1,791명, 2급 5,416명, 2023)이다. 그러나 엄격한 질관리에도 불구하고 상담심리사는 민간자격증이라는 한계로 인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찾는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는 타 민간자격증과의 차별성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즉 심리상담에 관한 모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검증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며,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심리상담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된 심리상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비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상담 전문자격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이에 보건복지부(2021)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안’을 제시하면서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자격증을 규제하고 심리상담 전문인력 자격관리 및 지원체계를 법제화를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증폭되기 시작했고,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의 여러 개인과 단체에 의해 다양한 관점과 기준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성현모, 이상민, 2022).

그러나 기존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들은 각자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의 기준과 평가 방식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심리상담 전문가가 갖추어야 하

는 이론적 지식역량과 실무역량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신윤정, 이지연, 2021). 학부 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 등 최소 학력 기준에 대한 상이한 의견과 함께 심리상담 수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실습 시간과 방식에 대한 의견도 상이한 상황이다(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학부 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이라 해도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최소한의 명시적인 공통 교육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심리상담 전공 수련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과 최소 학점 등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종 학력 수준이 동일하다 해도 심리상담과 관련된 전문성의 수준이 유사하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이론적 지식역량 및 심리상담 실무역량에 대한 표준적인 공통 기준이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증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이슈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수반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성이 보장된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면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명시적 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견과 이슈를 뒤로하고, 심리상담의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 ‘심리상담 전문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서부터 숙고할 필요가 있다. 상담이라는 용어는 재무상담, 법률상담 등과 같이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상담은 ‘심리상담’으로 구분된다. 용어에 있어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문제의 해결 및 예방과 심리적 성장을 돕는 활동을 ‘상담’으로, 임상군을 대상으로 심리적 증상 완화를 돕는 활동

을 ‘심리치료’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 심리상담은 심리치료와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된다(권석만,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 심리치료를 상호 교환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심리치료는 ‘성격이론에 근거하여 사고, 감정,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체계적 방법’(Corsini, 2002)으로 정의된다. 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담자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사이의 주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Garfield, 1995)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심리상담 전문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 행동과 변화의 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치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자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러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과과정 표준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심리상담 자격제도가 갖추어진 해외 국가들이 심리상담 전문가의 정의와 역할, 핵심역량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조사하고, 이를 위해 요구하는 필수 교육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해당 국가들이 심리상담 영역에 대한 오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심리상담 자격증 법제화를 앞서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교과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 심리상담 역량 표준에서 요구하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국가직무역량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sup>1)</sup>)을 근거로 살펴보고, 이

1) NCS는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를 해외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비교하였다. 심리상담 모델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모델에 의존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간과한다는 선행연구(Nilsson et al., 2019)의 지적이 있다. 따라서 NCS에서 심리상담에 필요한 역량과 교육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해외 심리상담 전문가의 핵심역량 및 교육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NCS 심리상담 직무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신형, 2022)되는 현실에서, NCS를 그대로 표준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심리상담 전문가 교육 표준으로서 적절한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 표준을 제안하되 국내 표준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NCS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연구문제는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 표준안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 심리사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해외에서 상담사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심리상담 역량 표준에서 요구하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상담 전문 자격제도를 갖춘 많은 국가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볼 대표적인 국가를 선별하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자격 법제화를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김수임 등, 2021; 나고은 등, 2021; 노은빈 등, 2022; 성현모, 이

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임

상민, 2022; 신윤정, 이지연, 2021)를 참고하였다. 해외 사례 중 가장 활발하게 조사된 국가는 미국이었다(예; 나고은 등, 2021; 신윤정, 이지연, 2021). 국제 수준의 심리서비스 전문가 자격 기준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노은빈 등, 2022)에서는 가장 다양한 국가를 살펴보았는데,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가 포함되었다. 심리상담 자격 법제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해외 대표사례로 미국과 일본 사례가 검토되었고(김수임 등, 2021), 심리상담 법령을 모범형태로 제정한 대만의 사례가 검토되었다(성현모, 이상민,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6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대만)의 심리상담 전문 자격 제도가 해외 대표사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심리상담 서비스 제도의 모범적인 사례인 미국(나고은 등, 2021; 신윤정, 이지연, 2021)에서도 심리사(psychologist)와 상담사(counselor)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전문성을 갖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MacLeod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별된 6개국에서 심리사와 상담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조사에 포함하여 두 자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자들은 각자 한 국가를 맡아 각국의 심리사와 상담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의와 역할,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기본 틀로 정보를 정리하였다. 기본 틀을 구성한 근거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며, 핵심역량은 정의 및 역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는 각 자격을 발급 및 관리하는 홈페이지(관련 법령, 학회, 교육기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sup>2)</sup>,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였고 일본과 대만은 이중언어자와 연구자가 함께 자료를 수집 및 번역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모든 연구자가 각국에서 조사된 원자료를 숙지한 후, 회의를 통해 나라별 특징과 심리사 및 상담사의 특징을 논의하고 의견을 취합하였다. 셋째,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특징을 중심으로 1인이 각국의 정보를 요약하고, 요약된 내용의 적절성을 전체 연구자가 확인하였다. 넷째, 요약된 정보를 토대로 연구자 4인이 심리사(2인)와 상담사(2인) 각각의 공통적인 정의와 역할,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상호 논의하여 정리하고, 내용의 적절성을 전체 연구자가 확인하였다. 내용의 적절성 확인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메일, SNS, 통화 등으로 의견을 조율 후 수정 또는 유지하였다.

국내 심리상담 역량 표준에 대한 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NCS에서 심리상담은 대분류 사회복지 및 종교의 중분류 상담에서 소분류 심리상담 내 세분류로 언급된다. 이외에도 대분류 숙박/여행/오락의 세분류 장레지도 내의 능력단위로 유족심리상담이 포함되고, 대분류 보건/의료 내의 세분류 임상심리 내의 능력단위로 심리치료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 중 사회복지 및 종교 분야에 포함된 ‘심리상담’이 본 연구의 관심 주제인 국내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를 위한 교육 모듈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NCS 사례 조사는 다음의 과정

을 거쳤다. 첫째, 연구자 1인이 국가직무능력 표준 홈페이지<sup>3)</sup>를 통해 NCS에서 제안하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수역량 및 교육 내용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의 기본 틀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둘째, 조사 과정에서 NCS에서 제시한 역량과 교육 내용은 해외 사례에서 수집된 역량 및 교육과정과 구성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앞서 연구자 1인이 정리한 방식이 타당한지를 다른 연구자 2인이 검토하였다. 타당성의 기준은 1)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에 유용한지, 2) NCS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지로 선정하였다. 이메일과 SNS,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연구자 3인이 NCS 정보를 정리했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다.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고 어떠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효과성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증 법제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역할과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심리학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정체성과 도전과제를 점검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정주리 등, 2023). 본 연구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수 역량을 갖추기에 합당한 교과를 마련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교과과정 표준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전문성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교과 표준 마련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참고 홈페이지 예시> 미국 <https://abpp.org>, <https://www.counseling.org> 등; 캐나다 <https://cpo.on.ca>, <https://www.ccpa-accp.ca> 등; 영국 <https://www.bps.org.uk>, <https://www.bacp.co.uk> 등; 호주 <https://www.ahpra.gov.au>, <https://www.psychologyboard.gov.au>, <https://www.aipc.net.au> 등; 일본 <https://www.jccpp.or.jp/Top.cgi> 등; 대만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20098> 등.

3) <https://ncs.go.kr>

## 해외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

한국의 경우는 상담사, 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치료사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담사(counselor)와 심리사(psychologist<sup>4)</sup>의 차이를 거의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상담사와 심리사 자격을 엄격히 구분하는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박사학위를 갖추어야 하는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 LP)와 석사학위와 일정 수련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상담사(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LPC)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승인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자격제도도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사는 APA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실무요건을 갖춘 경우, 상담사는 CACREP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실무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심리사는 과학적 접근과 해결방법을 강조하며 상담사는 상담 실무 내용의 교과목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APA, 2010; CACREP, 2016; 김수임 등, 2021).

그러나 실제로는 두 집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고, 오히려 심리사와 상담사 모두가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 전문직(helping profession)이라는 공통된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Burkard et al., 2020). 특히 사람을 조력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자원에 대한 믿음, 전인적 발달과 직업적 발달 중시, 사회적 정의와 옹호에 대한 헌신, 예방 및 중재적 상담 강조, 그리고 과학자-실무자 모델에 대한 충실성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한다(Gelso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모두 국민의 정신건강을 조력하는 상담심리 전문가로 고려하고 관련 자격증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 심리사

심리사 국가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그리고 일본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자격 명칭을 심리사(psychologist)라 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의 경우 심리사의 전문 분야 중 상담심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공통적인 과정을 요구하지만 주마다 학력, 수련, 자격 기준이 다양해서 자격 기준이 엄격한 주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주를 예시로 선별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각국의 국가자격 제도 및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심리사 정의 및 역할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는 심리사가 하는 역할(연구와 정신건강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심리사를 정의하는 반면, 대만이나 일본은 법규에서 규정한 지위를 중심으로 심리사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리사에 대한 각

4) Psychologist를 ‘심리학자’ 또는 ‘심리사’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학자로서의 역할보다 심리상담 실무자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심리사’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함. ‘심리사’로 용어를 사용하되, 내용은 각국의 ‘심리사’ 또는 별도의 구분이 된 국가의 경우는 ‘상담심리사(counseling psychologist)’의 자격을 조사한 것임.

국가의 정의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요약된다.

각 국가는 심리사를 심리학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이자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로 역할을 설명하여 과학자-실무자 모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로서 심리사는 개인, 집단, 조직, 사회의 웰빙과 효율성 증진에 힘쓰고, 심리측정 및 진단을 수행하며, 심리,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및 대인관계 기능을 향상 및 유지하고, 삶의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한다. 연구자로서 역할도 강조되고 있는데, 심리사는 심리학적 원리, 지식, 모형 및 방법을 개발하고 인간의 행동 및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심리사에 대해 실무자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두뇌 기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 인간 행동 및 정서 패턴에 대한 정의와 연구 수행, 논문과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명시된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2023). 영국의 상담심리사는 심리 이론과 연구를 치료 실습과 통합하는데 관심을 두는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전문 응용 심리학자라고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한다(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23). 각국 심리사의 업무영역은 크게 심리치료, 진단 및 평가, 연구, 교육 및 슈퍼비전, 자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심리사 핵심역량

각국이 제시하는 심리사의 핵심역량은 크게 지식역량과 기술역량으로 구분되며, 각 역량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역량은 다음과 같다.

- 1) 지식역량
  - 전생애 발달에 대한 이해(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후기 성인기 내담자에 대한 이해)
  - 성격, 대인과정, 개인차, 성과 정체성, 정서경험, 인지, 의미와 신념이 발생하는 맥락에 대한 지식
  - 다양한 상담 상황과 심리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
  - 치료이론, 치료과정 및 내담자, 치료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 정신건강과 안녕감에 대한 이론적 지식
  - 윤리적, 법적, 직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해(윤리적 문제와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
- 2) 기술역량
  - ① 진단 및 평가 역량
    - 심리평가 이론에 대한 지식
    - 심리적 기능을 평가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를 사용
    - 정신장애 평가와 진단
    - 심리학적 치료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 사용
    - 수집한 평가자료에 근거한 진단
    - 서비스 제공 이후 평가
  - ② 상담 및 치료 역량
    - 개인, 집단, 가족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치료
    - 근거기반 상담과 심리치료
    - 내담자가 복용하는 약물을 이해하고 이를 심리치료에 연결
    - 상담 및 심리치료 개발 및 계획 이해
    - 연구 및 평가 결과를 상담 및 심리치료와 연결

③ 연구 역량

- 정신장애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있어 심리적 요인을 연구
-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험 등 다양한 연구수행
- 연구논문 및 관련 문헌 출판

④ 개발 및 평가 역량

- 인간행동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 모델 및 방법 개발
-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측정도구 개발
- 서비스의 영향 및 효과를 평가

⑤ 자문 및 교육 역량

-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자문
- 정부 및 기관에 대한 자문
-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교육과 정보 제공
- 인턴, 임상 및 상담 전문가 수퍼비전 제공

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역량

- 내담자, 가족, 간병인, 건강 및 의료종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게 의료법적인 목적을 띤 구두 및 서면 보고서 제공
- 다양한 역할과 환경에서 심리사의 의무에 대해 의사소통
-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 심리사 이외 다양한 역할과 환경에서 협업하는 전문가들과 유능하고 윤리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작업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자문과 심리교육을 제공
-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

한 행동 방침을 식별하고 의사소통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지식역량은 기초가 되는 사항이므로 모든 국가가 기저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술역량 가운데 ‘진단 및 평가’역량과 ‘상담 및 심리치료’역량은 모든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문’의 경우에는 대만을 제외한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및 평가와 개발’역량은 주로 영국 및 북미 그리고 호주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만이나 일본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응용심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 이하 IAAP)와 국제심리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 이하 IUPsyS)은 ‘심리사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 선언’을 통해 심리사의 ‘전문적인 활동 역량’과 ‘전문적인 행동 역량’, 그리고 이러한 ‘핵심역량을 뒷받침하는 심리학 지식과 기술’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IAAP & IUPsyS, 2016). 제시된 전문적인 활동 역량에는 적합한 목표 설정, 심리평가, 심리학적 개입,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포함되고, 전문적인 행동 역량에는 윤리적인 업무수행, 행동의 전문성, 내담자와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 형성, 다문화 역량, 근거기반 개입, 자신의 업무 성찰이 포함된다. IAAP와 IUPsyS(2016)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뒷받침하는 심리학 지식과 기술’은 1) 심리사의 핵심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리학 개념, 구인, 이론, 방법, 실무, 그리고 연구방법에 대한 필요한 기초 및 전문 지식의 보유 그리고 2) 심리학적 실무에서 핵심역량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기초 및 전문 기술 보유를



의미한다.

IAAP와 IUPsyS(2016)의 ‘심리사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선언’ 내용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각국의 심리사 핵심역량을 비교해 보면, 실무에서의 전문적 활동을 하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리학적 지식역량을 심리사의 핵심역량의 주요 축으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행동 역량’이나 ‘전문적인 활동 역량’의 거의 모든 하위 역량은 본 연구의 각국 심리사 핵심역량 조사 결과와 분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다만 IAAP와 IUPsyS(2016)의 ‘전문적인 행동 역량’의 하위 영역 가운데 ‘자신의 업무 성찰’은 본 연구에서 각국의 심리사 핵심역량으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역량이었다.

### 심리사 필수 교과과정

심리사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 호주, 그리고 대만과 일본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모든 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는 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학부에서도 심리학을 전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즉, 심리사 자격을 위한 최소 학위는 대부분 국가에서 석사로 하고 있었다. 각국이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심리사 교과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교과 범주는 대동소이했으며, 심리사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관련 교과목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요구된다. 아래 표에서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과목의 범주와 관련 교과목, 그리고 각 범주 및 교과

목이 목표로 하는 심리사 핵심역량을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표 1>.

각국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심리사의 역할 및 핵심역량이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과학자-실무자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자 역할과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역할에 필요한 역량이 교과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심리사 핵심역량 가운데 기술역량의 토대가 되는 지식역량은 주로 학부 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학부 교과과정에는 지식역량 습득이 필요한 반면, 대학원 교과과정에는 주로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목으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었다. 윤리와 법 관련 교과목 정도가 대학원 과정의 지식역량과 관련된 교과목 이해할 수 있다.

### 상담사

국가자격증 및 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상담사 자격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이다. 각국의 상담사는 상담사(counselor, counsellor), 상담치료사(counseling therapist), 정신건강상담사(mental health counsellor) 등의 명칭으로 지칭된다. 상담사는 공인 민간자격증으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공인 민간자격증<sup>5)</sup>이 있는 상담자만 자신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해 ‘심리치료’ 또는 ‘상담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예; Nova Scotia)이 있다.

5) 캐나다 상담 및 심리치료 협회(CCPA)의 캐나다 공인 상담사(Canadian Certified Counsellor; CCC)가 가장 널리 인정됨

표 1. 심리사를 위해 요구하는 영역 및 교과목과 관련 역량

범주	관련 교과목	역량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생물심리학, 신경·생리 심리학, 건강·의료심리학, 신경과학	지식역량
행동의 인지-정서적 기초	감각, 지각과 인지, 인지심리학, 정서와 개인차, 감정·인격심리학, 학습·언어 심리학	지식역량
행동의 사회문화적 기초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집단·가족 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사법·범죄심리학	지식역량
전문성 및 윤리·법	심리학 실제의 적용, 상담(심리)에서 윤리적/전문적 이슈, 윤리와 증거기반 실무, 공인심리사의 직무, 상담윤리와 법규	지식역량
성장과 전생애발달	발달심리학, 장애심리학	지식역량
평가와 진단	심리평가, 이상심리학(정신병리학), 심리상태 관찰과 결과 분석, 임상심리학 개론, 사례평가와 심리검사	지식역량 기술역량(진단 및 평가)
연구방법과 통계	연구방법, 심리연구방법론, 심리학 실험, 심리학 통계법, 연구 프로젝트, 고급심리연구방법론(통계와 연구설계)	지식역량 기술역량(연구) 기술역량(개발 및 평가)
치료, 개입 및 실제	상담 및 심리적 개입, 심리실제 - 성인 정신병리, 아동·가족, 정신질환과 치료, 심리치료기법, 집단상담 및 집단심리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아동·청소년상담, 가족치료, 건강과 역량 위기(도전)에 대한 상담	지식역량 기술역량(상담 및 치료) 기술역량(개발 및 평가) 기술역량(자문 및 교육)
수퍼비전 및 현장실습	인턴쉽, 심리학 실제(실무실습), 상담현장실습, 상담기술 훈련 및 수퍼비전, 심리실습	기술역량(자문 및 교육)
관계 역량*	고급대인관계 기술, 상담에서 대인관계 기술	기술역량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특수 교과	상실 이해하기, 위기상담, 다양한 유관 분야 이해(조직, 복지, 교육, 건강, 의료, 범죄 등)	지식역량 기술역량(상담 및 치료) 기술역량(자문 및 교육)

주. \*관계 역량의 경우에는 미국과 호주에서 주로 요구함

**상담사 정의 및 역할**

각 나라는 ‘상담사’를 자격증이 요구하는 일정한 교육과 수련기준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정의한다. 각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 수련기준은 인간의 행동·발달·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상담적 개입을 위한 전문 기술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이는 상담사 자격의 조건이 근거에 기반한 상

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수련 기준을 포함함을 시사한다.

각국은 상담사의 업무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각국이 상담사의 업무영역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상담자는 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심리교육 및 자문, 상담심리 연구, 상담자 양성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례로 캐나다의 상담 및 심리치료 협회(CCPA, Canadia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Association)에서는 상담사의 역할규준을 상담, 측정 및 평가, 연구, 수퍼비전, 컨설팅, 상담자/치료자 교육 및 훈련이라고 명시하여 상담사가 다양한 현장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함을 제시한다. 각국은 그중에서도 상담사의 주요한 역할로 ‘상담’에 주목한다. 미국 상담 협회(AC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에서는 상담을 정신건강, 안녕, 교육, 진로 목표를 성취하도록 다양한 개인, 가족, 집단원들의 힘을 북돋아 주는 전문적인 관계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는 상담사가 전문적 관계를 통해 조력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호주(PACFA, Psychotherapy and Counselling Federation of Australia)에서는 상담사는 상담대상자의 발달과 실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영국 상담 및 심리치료 협회(BACP, 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는 상담사는 내담자의 사고, 정서, 행동을 탐색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삶에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문제대처 방법을 찾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상담사의 조력활동을 구체화하였다. 호주(ACA, Australian Counselling Association)에서는 상담사의 학습 과정은 사회사업, 복지, 심리학 등이 아닌 상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상담’

전문성을 위해 특화된 학습을 강조하였다.

### 상담사 핵심역량

상담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크게 상담 실무에 필요한 1) 지식역량과 2) 기술역량으로 구분되고, 상담사로서의 지속적 발달을 위한 3) 자기성찰 및 성장 역량이 추가적으로 제시된다<sup>6)</sup>. 본 연구에서 각국의 상담사 제도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파악된 핵심역량 및 세부역량은 다음과 같다.

#### 1) 지식역량

- 전생애 발달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영역(신체, 심리, 영적)의 인간발달에 대한 이론적 지식
-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론과 실제
- 상담대상자(개인, 커플(부부), 가족, 집단)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정신건강 장애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위한 상담심리학 주요 이론에 대한 지식(인간관, 주요개념, 상담목표 및 기법에 대한 지식)
- 심리측정, 심리평가 및 진단을 위한 심

6) 상담사의 핵심역량으로 지식역량과 기술역량을 제시하는 것은 심리사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각국의 상담사 자격제도에서는 심리사에 비해 상담자의 자기성찰과 지속적 성장 역량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영국의 BACP는 자기인식 역량과 반성적 상담 역량을 명시하고, 호주의 상담사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RCAP(Australian Register of Counsellors & Psychotherapists)는 성찰적 실천 역량과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발달 역량을 명시한다. 상담사의 자기성찰 및 성장은 심리사처럼 지식이나 기술 역량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적 역량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 리평가 이론 및 실제, 연구에 대한 지식
- 치료적 변화 과정에서 상담 관계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이해
- 윤리적, 법적, 직업적 문제에 대처하고 조력하기 위한 상담자 윤리이론,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에 대한 지식

2) 기술역량

① 의사소통과 관계 구축 역량

- 상담대상자, 이해 관계자, 다른 관련 전문가, 조직 또는 더 넓은 지역사회와 촉진적이고 효율적인 관계 형성 및 조율
- 치료적 동맹 형성 및 유지
- 명확성, 정확성, 관련성, 일관성, 간결성을 갖춘 소통
- 전문적, 윤리적, 법적 요건 등을 충족시킨 소통
- 대면 및 비대면의 형태로 공식적인 소통

② 심리평가 및 상담개입 역량

- A. 상담대상자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역량
  - 평가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 및 사용
  - 검사의 실시 및 해석보고서 작성
  - 심리검사 이외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활용
  - 수집된 평가자료에 근거한 진단
- B. 진단, 근거-기반 사례공식화(사례개념화) 및 상담목표와 개입전략을 연결하는 역량
- C. 상담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근거-기반한 심리상담 실행 역량
  - 교육, 진로 등을 포함한 전 생애 전환기 문제

- 개인의 심리적 기능(인지, 정서, 대처행동) 저하
- 트라우마 이슈(상실, 가정 폭력, 성폭력, 각종 사고 등)
- 위기(자해, 자살, 약물중독, 사회적 참사 등)
- 개인 간, 가족 간, 집단 간, 지역사회 내 관계 갈등 등

D. 법적, 윤리적, 직업적 행동 원칙에 대한 이해와 심리상담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

E. 상담대상자(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거-기반 심리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역량

③ 상담 연구 및 자문 역량

- 전문적 상담연구물 및 문헌 조사·검토
- 기초적 상담 연구 수행
- 상담대상자(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연구정보 문헌검토, 근거-기반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3) 자기성찰 및 성장 역량

- 성찰적 태도 실천: 상담자의 자기이해, 수용 및 확장에 대한 자각
- 상담자로서 자신의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수퍼비전 및 교육 활용

상담사의 경우도 지식역량은 기술역량 함양의 기초가 되는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담사는 치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주요 업무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과 관계 구축 역량’ 및 ‘심리평가 및 상담개입 역

량'을 강조한다. 이에 더하여, 상담사의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성찰 및 성장 역량이 별도로 강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심리사의 경우 IAAP와 IUPsyS(2016)의 '심리사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선언'에서는 '자신의 업무 성찰'을 별도로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기성찰은 심리사와 상담사의 공통적인 핵심 역량인 것으로 사료된다.

### 상담사 필수 교과과정

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담사 자격을 위해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관련 분야에서의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앞서 살펴본 심리사와 달리 상담사 자격의 경우 특정 학과나 전공에 대한 학사 기준 제한은 없고, 각국의 상담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협회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학원 석사 이상의 과정에서 일정한 교과 영역을 이수해야 한다. 각국은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과교육 범주로 인간행동의 이해, 상담의 이해, 평가와 진단, 연구, 윤리와 법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가별로 진로발달, 가족상담, 성문제 등의 특수 교과 범주를 제시하고 있었다. 상담사는

각 범주에 대해 세부적인 교과목을 제시하기 보다는 관련 교과 영역을 제시하고 이수하도록 요구한다. 아래 표에서는 각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범주와 관련 교과 영역을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표 2>.

상담사 교육을 위해 제시된 범주와 교과 영역들은 영역만으로는 지식역량을 위한 것인지 기술역량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우선, 지식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인지/정서/행동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는 '인간 행동의 이해' 범주의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장 및 발달' 교과 영역이 지식역량 함양을 위한 영역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상담 대상자를 위한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식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담의 이해' 범주의 '상담이론' 교과 영역, '집단 및 집단상담' 교과 영역, 그리고 특수 교과의 '진로발달', '커플 및 가족 상담', '성문제'등 다양한 교과 영역들이 요구된다. 심리평가 및 심리측정을 위한 지식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가와 진단' 범주에서의 '심리측정 및 평가' 교과 영역이 제시되며, '특수 교과' 범주의 '위험 평가 및 개입'에서도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 대

표 2. 상담사를 위해 요구하는 범주와 관련 교과 영역

범주	관련 교과 영역
인간 행동의 이해	인간의 다양성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인간성장 및 발달 (인간 발달과 학습)
상담의 이해	상담이론, 집단 및 집단상담, 수퍼비전
평가와 진단	심리측정 및 평가
연구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근거기반개입
윤리·법	상담윤리와 법
특수 교과	진로발달, 특수 환경 및 대안적 방법의 상담, 커플 및 가족상담, 성문제, 위험 평가 및 개입, 일반의약품, 철학

한 지식역량은 ‘연구’ 범주의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교과 영역으로,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처하고 조력하기 위한 지식역량은 ‘윤리·법’ 범주의 ‘상담윤리와 법’ 교과 영역으로 함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다음과 같다. 기술역량의 ‘의사소통과 관계구축 역량’은 ‘상담의 이해’ 범주의 ‘수퍼비전’ 교과 영역을 통해서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심리평가 및 상담개입 역량’은 역시 ‘상담의 이해’ 범주의 ‘수퍼비전’과 ‘집단 및 집단상담’ 교과 영역, ‘평가와 진단’ 범주의 ‘심리측정 및 평가’ 교과 영역 등으로 함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윤리·법’ 범주와 ‘특수 교과’ 범주의 교과 영역들로 ‘심리평가 및 상담개입’ 기술역량 함양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 연구 및 자문 역량’은 ‘연구’ 범주의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근거기반개입’ 교과 영역으로 함양될 것이다.

한편 제시된 교과 영역들은 지식역량과 기술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에게 강조되는 자기성찰 및 성장역량은 별도의 교과 영역이 아닌 전반적 교과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이거나 또는 교과과정 이외의 수련 과정에서 특히 집중하는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국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국내 자격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3).

NCS에서 심리상담은 사회복지 및 종교 분야에서 상담 중분류 중 소분류의 하나에 해당한다. NCS 직무체계는 기본 지식의 1수준에서 고도의 역량 및 경력을 요구하는 8수준까지 구분하여 지식 및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영역도 8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리상담 분야는 고등교육(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을 마치고 진출할 수 있는 직업으로 직능수준에 따라 3수준에서 8수준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직급체계를 설정하여 각 수준의 역할 및 직무를 제시한다. 3수준은 전문학사 및 학사를 마치고 심리상담 기본 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며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4수준부터 심리상담 실무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심리상담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를 말한다. NCS는 심리, 종교, 가족, 사회복지, 교육학, 유아교육 및 재활학 계열을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심리상담 분야에서 2021년 기준 약 4만 3천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3).

### 심리상담사<sup>7)</sup> 정의 및 역할

심리상담은 심리사회적 문제 예방 및 해소, 심리건강을 위하여 전 연령의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문적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심리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수행하는 일로 정의한다. 심리상담사는 상담관련 행정,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교육 자문 및 평가, 연구개발

7) NCS의 ‘심리상담’ 직무에 대한 조사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심리상담 전문가를 ‘심리상담사’로 칭함.

및 기타 서비스를 하는 기초상담행정가에서 기관장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심리상담 능력단위

NCS는 심리상담을 총 21단위로 능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내용은 <표 3>과 같다.

능력단위 별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상담 기획 및 프로그램, 홍보, 정보 관리 등은 3-4수준의 능력을 요구하지만 다양한 대상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등은 상위수준인 5-7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NCS는 각 능력단위의 세부 요소별로 직무 책임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요건으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시하고 있고 관련 자격 사항 및 사전 직무경험 및 숙련 기간 등을 제안하고 있어 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심리상담사의 핵심역량

NCS는 심리상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준별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

하여 각 역량을 소개하고 있다. 기초능력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 심리사 및 상담사의 기초역량과 유사하며 직무수행능력은 실무에 필요한 능력으로 해외 심리사 및 상담사의 기술역량과 유사한 구조이다.

#### 1) 직업기초능력

NCS는 심리상담 세부야를 3-8수준의 직무로 보고 기초능력을 소개하고 있다. NCS에서는 모든 직무표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를 기술하고 있다. 심리상담 분야는 이중 수리능력을 제외한 9가지를 기초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자기개발 및 조직이해 능력 등이 추가되는 구조이고 모든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능력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정보능력 및 직업윤리이다.

#### 2) 직무수행능력

NCS는 각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으

표 3. 심리상담의 능력단위

수준	능력단위
3	심리상담 안내, 심리상담 홍보
4	심리상담 기획 행정, 접수상담, 내담자 의뢰·연계, 심리상담 정보관리
5	개인심리치료상담, 집단상담, 관계자 상담, 심리상담 교육, 심리검사 활용, 비대면 상담
6	위기상담, 심리상담 자문, 심리상담 사례개념화, 재난극복 상담, 트라우마 심리치료, 부부 가족 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7	수련상담자 교육, 심리상담 슈퍼비전

로 수준별 능력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교육 수준 및 업무 수준이 직급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를 반영하여 다른 능력들을 기술하고 있다. 예로, 상담행정원은 심리상담 안내 및 홍보가 주요 역량이라면 선임상담원은 개인 심리치료, 집단상담, 커플 및 가족상담, 심리상담 교육 및 심리검사, 비대면 상담 등으로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상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수준의 역량을 통합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심리상담 운영 역량
  - 심리상담 안내 및 홍보
  - 심리상담 기획 및 행정
- ② 심리상담 실무역량
  - 내담자와 관계수립 및 내담자 의뢰
  - 심리상담 사례개념화
  - 심리상담 정보 관리
  - 개인심리치료
  - 집단상담
  - 커플 및 가족상담
  - 비대면 심리상담
- ③ 심리검사 활용 역량
- ④ 심리상담 자문 및 교육 역량
  - 심리상담 자문
  - 심리상담 교육
- ⑤ 위기상담 역량
  - 위기상담
  - 재난상담
  - 트라우마 치료
- ⑥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역량
  - 수련자 상담교육
  - 상담 수퍼비전

### 심리상담사 교과과정

심리상담 분야의 환경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NCS는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상담이론과실제, 학습심리학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상담사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목 단위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앞서 기술한 능력단위에 따라 능력 단위 요소를 세분화하고 필요 교육 내용을 시간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지식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초능력은 하나의 교과 영역으로 묶어서 소양교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직무를 위한 모든 기초능력을 다루고 있다. NCS에서 심리상담사 지식 및 기술역량을 충족하기 위해 제시하는 교육 내용은 <표 4>와 같다.

### 해외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과 국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교

앞서 해외에서 심리상담 전문가의 정의와 역할, 핵심역량,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살펴보았고 NCS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상담 직무의 정의와 능력 단위, 그리고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와 NCS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상담 직무를 비교하여 한국의 심리상담 전문가 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NCS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단위는 심리사나 상담사의 핵심역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리사, 상담사, 그리고 심리상담사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영역으로 심리상담 전문가의 정의와 역할, 핵심역량, 그리고



표 4. 심리상담 직군에서 요구하는 능력단위와 교육되어야 할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필수 교육 내용)
직업기초능력 (NCS 소양교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심리상담 안내	상담신청 응대, 상담절차 설명, 신청접수 및 예약 관리
접수상담	호소문제 파악, 정보수집, 가족관계파악, 문제수준 분석, 상담방법 안내 및 상담자 배정
내담자 의뢰 및 연계	의뢰 및 연계기관 발굴, 의뢰 및 연계기관 망 구축, 내담자 의뢰 및 의뢰사례 추수관리
개인 심리치료 상담	상담구조화, 상담관계형성, 상담목표합의, 상담진행, 상담종결 및 상담과정 평가
집단상담	집단상담 기획, 집단상담 진행, 집단상담 종결 및 집단상담 과정 평가
관계자 상담	커플상담, 가족상담, 조력자 상담 및 동료 상담하기
위기상담	위기상황진단, 위기상담 계획, 위기상담 진행, 위기상담 종결 및 과정 평가
심리상담 교육	심리상담 교육 요구조사, 교육 설계 및 실시
심리검사 활용	심리검사 실시, 결과평가 및 해석상담
심리상담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상담기록 관리, 상담통계분석 및 결과활용
심리상담 자문	자문관계구축, 자문계획, 자문실시 및 평가
수련상담자 교육	수련상담자 교육분석, 윤리교육 및 심리상담 훈련 실시
심리상담 수퍼비전	수퍼비전 구조화, 수퍼비전 개입 및 종결
심리상담 사례개념화	내담자 주호소 문제 개념화, 상담목표 설정, 전략 및 방법 수립
재난극복 상담	재난 대상자 스크리닝, 재난반응평가, 재난상담 전략 수립 및 진행, 상담결과 평가
트라우마 심리치료	스트레스 반응 평가, 안정화 경험 제공, 트라우마 심리치료 목표 및 전략 수립, 심리치료 진행 및 평가
부부 가족 상담	부부 가족 상담 관계형성, 부부 가족 체계 사정, 상담 목표 및 전략 수립, 상담 진행 및 종결, 상담평가
비대면 심리상담	비대면 심리상담 기획, 환경구축, 상담 진행 및 평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계획,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시범운영 및 수정
심리상담 기획 행정	심리상담 사업 현황 분석, 사업 기획 및 운영, 행정업무 수행, 정책 및 자원 활용
심리상담 홍보	홍보대상 분석, 홍보전략 수립 및 실시, 홍보성과 평가

교과과정으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 정의와 역할

심리사, 상담사, 그리고 심리상담사의 정의를 보면 세 가지 모두 정신건강 지식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강조하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심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심리사를 규정하고 있고, 대만과 일본은 ‘법’을 중심으로 심리사를 규정하고 있다. 상담사를 국가자격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상담사를 정의하고 있다. 역할 측면에서,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의 심리사는 심리학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 역할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역할을 모두 강조한다. 반면, 일본과 대만의 심리사, 그리고 여러 국가의 상담사는 연구를 심리사나 상담사 역할에 포함시키고는 있으나 연구보다는 실무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NCS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도 연구에 대한 역할을 전문 능력단위에서 언급은 하고 있으나 연구보다는 실무를 강조하고 있다.

심리사와 상담사, 그리고 심리상담사의 정의와 역할을 검토해 보면 연구와 실무를 동등하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연구보다는 실무를 강조할 것인가라는 고려점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곧 심리상담 전문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할 때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역량

심리사, 상담사, 심리상담사 모두 기초가 되는 역량과 심리상담 실무 역량으로 핵심역량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명칭을 보면 심리사와 상담사는 기초가 되는 역량을 지식역량으로 그리고 심리상담 실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술역량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 반면, 심리상담사는 기초가 되는 역량을 기초능력으로 그리고 심리상담 실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직무수행능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두 기초가 되는 역량과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다.

우선 심리사나 상담사에서 지식역량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요구하는 반면 심리상담사에서는 모든 직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역량 10가지(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이 가운데 수리능력을 제외한 9가지 능력을 심리상담사의 기초능력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심리사나 상담사에서는 심리상담 실무를 위한 인간이해에 초점을 둔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심리사나 상담사에 특화된 기초능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심리상담사에서는 심리상담에 특화된 지식보다는 일반적 직업수행에 필요한 보편적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면 심리사나 상담사, 그리고 심리상담사 모두 검사, 상담 및 심리치료, 자문 및 교육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사의 경우에는 연구, 그리고 개발 및 평가와 같은 연구역량

을 상담사에 비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담사의 경우에는 자기성찰 및 성장역량을 심리사에 비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리상담사의 경우에는 기획이나 홍보와 같은 심리상담과 관련한 행정역량을 심리사 및 상담사에 비해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리사의 경우, ‘심리사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선언’에서 자신의 업무성찰을 규정하고 있어 상담사와 마찬가지로 자기성찰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다. 심리상담사가 심리사나 상담사와 다른 점은 핵심역량별로 전문성 수준을 수치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핵심역량별로 전문성 수준을 부여함으로써 역량별로 어느 수준의 교육이 각 역량별로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 심리사나 상담사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핵심역량에 포함되어 있어 개입 대상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알 수 있는 반면 심리상담사의 경우에는 인간이해에 대한 지식을 핵심역량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어느 수준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대상이 되는지 모호하다. 또한 자기성찰능력도 명시되지 않은 점도 심리상담사의

미흡한 점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리사, 상담사, 그리고 심리상담사 모두 핵심역량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자문 및 교육 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와 진단 및 평가를 어느 수준까지 다루는지와 행정역량을 심리상담 전문가의 핵심역량으로 보는지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심리사, 상담사, 심리상담사의 핵심역량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 교과과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과정은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6개국의 심리사와 상담사, 그리고 NCS에서 제시하는 심리상담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범주를 비교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각 자격 별로 교과과정을 분석해 보면 심리사는 인간행동의 기초가 되는 심리학 교과목들과 평가와 진단, 그리고 치료 및 슈퍼비전, 대인관계, 그리고 특수 문제 등 포괄적으로 심리학 관련 교과목을 교과과정으로 구성하고

표 5. 심리사, 상담사, 심리상담사 핵심역량 비교

심리사		상담사	심리상담사
지식역량		지식역량	기초능력
기술역량	진단 및 평가 역량	심리평가 및 상담개입 역량	직무수행능력
	상담 및 치료 역량		
	연구 역량	의사소통과 관계 구축 역량	
	개발 및 평가 역량		
	자문 및 교육 역량	상담 연구 및 자문 역량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역량		
자기성찰 역량	자기성찰 역량	-	

표 6. 교육 범주 비교

심리사	상담사	심리상담사 <sup>†</sup>
-	-	직업기초능력 (NCS 소양교과)
-	-	심리상담 기획 행정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	-
행동의 인지-정서적 기초	-	-
행동의 사회문화적 기초	-	-
전문성 및 윤리·법	윤리·법	-
성장과 전생애발달	인간 행동의 이해	-
평가와 진단	평가와 진단	심리검사 활용
연구방법과 통계	연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치료, 개입 및 실제	상담의 이해	심리상담 안내, 접수상담, 내담자 의뢰 및 연계, 개인 심리치료 상담, 집단상담, 심리상담 교육, 심리상담 정보관리, 심리상담 사례개념화
수퍼비전 및 현장실습 관계 역량 <sup>*</sup>	상담의 이해	수련상담자 교육, 심리상담 수퍼비전
특수 교과	특수 교과 <sup>‡</sup>	관계자 상담, 위기상담, 심리상담 자문, 재난극복 상담, 트라우마 심리치료, 부부 가족 상담, 비대면 심리상담

주. \*심리사의 관계 역량에 대한 요구는 미국과 호주의 교과교육에서 주로 요구함. 상담사의 경우 핵심역량에서 관계 역량을 강조하는 반면 교과교육에는 별도의 과목으로 명시되지는 않음.

주. † NCS는 교과목 또는 교과 영역을 제안하지 않음. 따라서 NCS가 심리상담사에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능력단위를 심리사, 상담사의 교육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음.

주. ‡ 상담사의 특수교과는 진로, 커플 및 가족상담, 성문제 등 대상별, 주제별로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

있다. 상담사의 경우에는 심리사와 마찬가지로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심리사에서 교과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는 인간행동의 생물학 기초나 인지, 정서적 기초는 빠지고 발달과 학습,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교과과정에 남아 있다. 반면 심리사에 비해 상담사의 교과 영역에는 특수영역이 상담 대상별, 상담 주제별로 더욱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사에서는 심리사나 상담사와 달리 기초능력을 인간이해에 대한 기초지식보다는 NCS에서 직업의 기초능력으로 가정하고 있는 능력을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있으며, 윤리와 법과 같은 교과목은 빠져 있다.

정리하면, 심리사나 상담사는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실무역량을 뒷받침해 주는 인간행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교과목으로 교과과정을 구성

하고 있다. 반면, 심리상담사는 인간이해보다는 직업에 필요한 보편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을 기초과정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 인간이해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NCS의 10가지 기초능력을 심리상담 전문가의 기초 역량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 표준을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해외 심리사 및 상담사와 국내 NCS 심리상담사의 정의와 역할, 핵심역량,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국내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 표준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상담 전문가의 역할과 역량을 고려할 때, 연구와 실무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가 교과 표준 마련에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심리사, 상담사, 심리상담사 모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규정되지만 영국, 미국, 호주의 심리사가 연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실무만큼 강조하는 것에 비해 일본과 대만의 심리사와 각국의 상담사, 그리고 심리상담사는 연구를 통한 서비스의 비중을 실무에 비해 적게 강조하고 있다.

만약 심리상담 전문가의 역할을 연구와 실무를 유사한 비중으로 병행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본다면 영국, 미국, 호주의 심리사 제도에도 요구하는 정도의 연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심리사에 요구되는 연구자로서의 역량

은 정신장애의 진단과 치료 및 예방에 있어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고, 설문조사와 실험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논문과 관련 문헌을 출판할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인간행동 이론과 모델 및 방법을 개발하고,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및 평가하며,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역량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방법과 통계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방법, 심리연구방법론, 심리학 실험, 심리학 통계법,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과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인지-정서적, 사회문화적 기초에 대한 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연구와 실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와 달리 심리상담 전문가의 역할을 실무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 전문가로 둔다면 연구 역량에 대한 요구는 축소된다. 상담사의 경우 기초적인 상담 연구 수행이나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심리상담사의 경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담사와 심리상담사 역시 기초적인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연구 수행 역량이란 집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행 연구물을 비판적으로 소비함으로써 근거 기반 실무를 수행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심리사와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학위를 석사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주로 박사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사를 최소 취득 요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역할보다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상대적으

로 더 강조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 하고 있는 석사 학위를 우리나라에도 차용한다면, 연구역량보다는 실무역량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적인 상담 연구를 수행하거나 심리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교과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심리상담 전문가의 실무자로서의 역할에서도 진단 및 평가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사의 경우 진단 및 평가 역량이 상담 및 심리치료 역량과 독립적인 역량으로, 그리고 유사한 비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담사의 경우 상담 대상자에 대한 심리평가 역량을 제시하지만 그보다는 평가와 진단을 상담에 활용하는 역량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진단 및 평가 자로서의 역할이 독립적이기보다 상담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심리상담사의 역할 역시 심리검사 활용으로만 제시되어 진단 및 평가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심리사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의 인식 연구(성현모 등, 2023)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가장 비중이 큰 업무로 인식되고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업무가 그 다음으로 비중 있는 업무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만약 심리상담 전문가의 역할에서 진단 및 평가를 상담 및 심리치료만큼 비중 있게 본다면 진단 및 평가 역량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진단과 평가를 상담 및 심리치료만큼 주요한 역할로 제시하는 해외 심리사 제도의 교과

과정 수준에 준하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심리사의 경우 평가와 진단을 위해 심리평가, 이상심리학(정신병리학), 심리상태 관찰과 결과분석, 임상심리학 개론, 사례평가와 심리검사를 교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심리상담 전문가의 역할에서 진단과 평가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본다면 해외 상담사 교과과정과 유사하게 심리측정 및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교과를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는 진단 및 평가 영역의 타 전문가와 협업하여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수준의 교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지식역량으로서 인간이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심리상담이 성격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체계적 방법(Corsini, 2002)이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Garfield, 1995)이라면,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는 재무상담이나 법률상담이 재무나 법률에 대한 이해 없이 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의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을 보면 많은 국가에서 핵심역량을 지식역량과 기술역량으로 구분하고, 지식역량에서는 인간이해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술역량에서는 실무에 필요한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핵심역량을 지식역량과 기술역량으로 나누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지식역량에서 인간이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요구할 것인지는 자격제도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인간이해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심리사 제도로 보인다. 심리사 교과에서 요구하는 인간이해는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생물심리학, 신경·생리 심리학, 건강·의료심리학, 신경과학), 인지-정서적 기초(감각, 지각과 인지, 인지심리학, 정서와 개 인차, 감정·인격심리학, 학습·언어 심리학), 사회문화적 기초(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집단·가족 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사 법·범죄심리학) 그리고 성장과 전생애발달(발 달심리학, 장애심리학)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 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심리사의 연구 역량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상담사의 경우에도 인간 의 신체, 심리, 영적 영역의 발달에 대한 이론 적 지식역량과 인간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지식역량을 요구하고, 인간의 다 양성과 인간성장 및 발달과 관련한 교과 영역 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사와 다른 부 분은 인간행동의 보편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 한 다양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인간의 발달적 또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에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요건을 석사학위로 본 다면 실무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을 석사과정에 배정하고 나면 인간이해를 위한 교과목을 석사과정에 배정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부에서 반드시 심리학 을 전공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간이해를 위한 교과목을 학부과정에 배정하여 전공이 아닌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는 여 건에 따라 학부 또는 석사 과정에 인간이해를 위한 과목을 융통성 있게 배정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인간의 심리

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역량이다. 따 라서 인간이해 역량을 위한 교과목은 인간행 동의 생물학적, 인지-정서적, 사회문화적 기초 에 대한 교과목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사료된다.

이처럼 인간이해를 강조하는 심리사나 상담 사와 달리 NCS에서는 심리상담사의 역량으로 인간이해 역량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NCS에서는 심리상담사의 실무적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역량이나 기술역량 어디에도 인 간이해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지 않는다. NCS 가 심리상담사의 직무능력 표준이 되기 위해 서는 인간의 통합적인 이해와 발달과정에 대 한 이해가 기초역량 또는 지식역량으로 포함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직업적 기초능력과 행정역량을 심리 상담 전문가의 핵심역량으로 볼 것인가는 재 고될 필요가 있다. NCS에서는 학부수준(3수준) 의 교육이 요구되는 심리상담 안내 능력과 심 리상담 홍보 능력, 석사수준(4수준)의 교육이 요구되는 심리상담 기획 행정 능력을 심리상 담사의 역량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영역 으로서도 직업기초능력과 심리상담안내, 심리상 담 기획 행정, 심리상담 홍보를 교육 범주로 제시한다. 이와 달리 해외 심리사나 상담사의 경우 직업인으로서의 기초능력이나 행정역량 은 전문가로서의 핵심역량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상담자가 국내 상담 현장에서 심리상담 안 내 및 홍보, 기획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3). 문제는 이러한 업무를 위한 별도의 역량이나 교과

가 명시될 필요가 있는가에 있다. 직업적 기초능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은 NCS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학부 수준의 교육으로도 함양될 수 있는 역량으로 판단된다. NCS가 심리상담사의 능력을 3수준에서 8수준까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은 심리상담사의 역할이 학부수준의 교육으로 가능한 영역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구분됨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직업적 기초능력 및 행정능력은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의 핵심역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 심리상담 전문가의 핵심역량과 NCS의 역량을 비교했을 때 NCS가 요구하는 역량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확보되지 않은 비전문적 활동 능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선행연구(이신형, 2022)에서도 심리상담 영역의 급속한 활성화와 확장에도 불구하고 NCS 세분류 심리상담이 2015년 최초 개발 이후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편 및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NCS에 제시된 교육내용은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관련 교과목(한국상담심리학회, 2023)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 이러한 교과목 운영이 실현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NCS 소분류 심리상담에서 제안하는 교육과정이 심리상담 전문가를 위한 교과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 표준에 심리상담 관련 법과 윤리를 다루는 교과를 포

함할 필요가 있다. 해외 심리사와 상담사 모두 핵심역량에는 심리상담에 있어서의 윤리적, 법적, 직업적 문제에 대처하고 조력하기 위한 상담자 윤리이론,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에 대한 지식역량과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실무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심리사의 교과에는 상담(심리)에서 윤리적/전문적 이슈, 윤리와 증거기반 실무, 전문적/윤리적 실제, 상담윤리와 법규가 제시되고, 상담사의 교과 영역으로도 상담윤리와 법이 명시된다. 이에 비해 국내 NCS에서는 심리상담사의 상담 윤리 및 법에 대한 이해나 적용 역량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기초능력으로서의 ‘직업윤리’는 성실성과 같은 일반적인 직업적 윤리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1976년 타라소프 사례로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과 법적 조치에 대한 깊은 사회적 관심과 고민이 촉발되었고(Corey et al., 2011) 국내에서도 심리상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담자의 윤리적 민감성과 법에 대한 이해가 크게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에 심리상담 관련 법과 윤리 교과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023년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사회적 합의가 수반된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증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성이 보장된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면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상담심리사 교과과정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그 결과로 <표 7>과 같은 표준안이 제시되었는데, 본 연구는 그 과정의 산출물이다. 본 연구가 사회적 합의가 모인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표 7. 상담심리사 교육과정 표준안

핵심역량		필수 교과목명
지식역량		▶ 발달심리학(전생애 발달) ▶ 성격심리학 ▶ 생물심리학(생리심리학, 신경심리학, 뇌과학 등) ▶ 학습심리학(행동수정, 행동치료 등) ▶ 상담윤리와 법* <기타> 사회심리학, 감각과 지각, 인지심리학 등
기술역량	심리평가 및 상담개입 역량	▶ 상담심리학(상담이론과 실제 등; 기본 상담이론 3개 이상을 포함한 교과) ▶ 이상심리학(정신병리 등) ▶ 심리평가(심리검사를 포함한 심리평가를 다룬 교과) ▶ 집단상담 ▶ 상담 및 심리치료 기법(상담기법, 상담실습, 슈퍼비전 <sup>1)</sup> )* <기타> 임상심리학, 다문화상담, 위기개입 / 부부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노인상담, 진로상담, 학습상담, 성상담, 발달정신병리학* 등
	상담연구·개발 및 자문 역량	▶ 연구방법론 ▶ 자문과 협력 ▶ 슈퍼비전 <sup>2)</sup> * <기타> 심리통계학, 심리검사법, 심리설계 / 조직심리학, 학교심리학, 심리교육*, 부모교육*, 심리자문* 등
	의사소통과 관계구축 역량	▶ 대인관계 심리학(인간관계론) 등

주. ▶ 필수교과목

주. \* 심화 과정에서 개설하기를 제안함

주. <sup>1)</sup> 슈퍼바이저로서 상담실습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으며 학습함; <sup>2)</sup> 슈퍼바이저로서 상담수련생 지도를 학습함

### 참고문헌

권석만 (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학지사.

김수임, 최나연, 정문주 (2021). 국내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상담학연구*, 22(5), 11-21.

김인규, 장숙희 (2019). 국내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종합연구*, 17(2), 43-61.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그램(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노은빈, 김현진, 최기홍 (2022).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제화 필요성. *한국심리학회*

지: 일반, 41(3), 243-255.

보건복지부 (2021).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성현모, 이상민 (2022).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상담학연구*, 23(3), 19-38.

성현모, 양난미, 하재필, 이상민 (2023). 심리·상담 서비스의 명칭, 범위, 업무 탐색: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2), 357-383.

신윤정, 이지연 (2021). 심리상담서비스 국가자격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4), 39-49.

이신형 (202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분류 심리상담 개편과 확대를 위한 연구. *상담학연구*, 23(1), 17-26.

- 이한나, 이정윤 (2023). 성인들의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원형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1), 223-249.
- 정주리, 김민정, 이지연, 정지선, 양승민, 양은주 (202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과 도전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논문(2015-2022)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4), 1687-1716.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 December 27). NCS 및 활용패키지. Retrieved December 27, 2023 from <https://www.ncs.go.kr/unity/hth01/hth0101/selectNcsModuleReport.do>.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3). *상담심리사 교과과정 표준안 제작 TFT 연구결과 보고서*.
- APA (2010). *Model Act for State Licensure of Psychologis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23, October 15). *Counselling Psychologist Job Profile*. Retrieved October 16, 2023, from <https://www.bps.org.uk/counselling-psychologist-job-profile>
- Burkard, A. W., Kruczek, T., & Alexander, C. M. (2020). School counseling and counseling psychology collaboration: A cautionary tal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8(5), 738-767.
- CACREP (2016). *2016 CACREP Standards*.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Programs.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11).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8th ed.). Cengage Learning.
- Corsini, R. J. (Ed.). (2002). *Encyclopedia of psychology* (2nd ed.). John Wiley & Sons.
- Garfield, S. L. (1995). *Psychotherapy: An eclectic-integrative approach*. John Wiley and Son.
- Gelso, C. J., Nutt Williams, E., & Fretz, B. R. (2014). *Counseling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IAAP & IUPsyS. (2016).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core competences in professional psychology*. <https://iaapsy.org/policies-initiatives/ipcp-documents/>
- MacLeod, B. P., McMullen, J. W., Teague-Palmieri, E. B., & Veach, L. J. (2016). What does the public know about professional counseling? A study of public knowledge and perception of professional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or Leadership and Advocacy*, 3(2), 95-110.
- Nilsson, J., Wang, L., & Chung, Y. (2019). Working globally: Advancing international competencies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7(4), 566 - 577.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2023, September 6).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Retrieved October 15, 2023, from <https://www.bls.gov/ooh/life-physical-and-social-science/psychologists.htm>

원 고 접 수 일 : 2024. 01. 15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1. 26  
게 재 결 정 일 : 2024. 01. 30

## Basic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raining Curriculum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als: Focusing on Overseas Cases

**Minjeong Kim**  
Ajo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Jaehong He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yojung Shin**  
Ajo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Hyojin Cho**  
Sungshin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unkyung Seo**  
Myongji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To legislate qualification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al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equirements with social consens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re competencies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als and suggest issues for curriculum standards. The USA, Canada, the UK, Australia, Japan, and Taiwan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overseas cases with a qualification system,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Data on psychologist and counselor qualification systems were collected to examine core competencies and curriculum. We found that these countries commonly expect counseling professionals to fulfill roles in counseling, evaluation, research, consultation, and education. They require competencies in knowledge, skills, and self-reflection, along with related courses and curriculum areas. Additionally, we examined the competencies and education of psychological counselors i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d found that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content were presented with a focus on detailed activities. Finally, we suggested the points to be considered and the direction for curriculum standards.

*Key words* :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als, curriculum, psychological counseling legislation, oversea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